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김영희C센터
담당 : 캠페인 그룹장 전인호 부단장 010-2045-9608

성남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만나는 이재명 후보의 눈물과 진심 - 김영희C센터 TV 광고 제2탄 ‘진심’ 편 공개

- 이재명 후보의 정책 성과와 인간적인 면을 동시에 소구
 - 이 후보의 정책이 서민의 삶, 자신의 참혹한 삶이 투영된 진짜 정책임을 강조
 - 현장과 광고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기존 선거 광고 문법을 파괴하는 과감한 시도로 20대 대통령선거 TV광고 첫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한 이재명 후보가 기세를 몰아 2편을 공개했다.
- 18일 오전 10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영희C센터(홍보소 통본부)는 당사 4층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TV 광고 제2탄 ‘진심’ 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광고는 다음 날인 19일 18시 39분 MBC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 이날 공개된 광고는 지난 1월 24일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이재명 후보의 성남 상대원 시장 연설이 담겨 있다. 상대원 시장은 이재명 후보와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몸을 의탁했던 곳이다. 이날 연설에서 이 후보는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은 책상머리 정책, 가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삶과 자신의 참혹한 삶이 투영된 진짜 정책임을 역설하고 있다.
- 김영희 센터장은 “상대원 시장 연설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 정책들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 우리 삶의 축적임을 보여준다” 라며, “자신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서민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 후보의 진심이 온전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대선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TV광고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원일 총괄단장은 “15일에 공개된 ‘편지’ 편에 관한 관심과 반응이 매우 높았다” 며, “이재명 후보만이 가진 강점이, 이번 ‘진심’ 편과 결합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김영희C센터는 이날 공개된 ‘진심’ 편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제3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편지’ 편, ‘진심’ 편 TV광고는 정치OTT 영상플랫폼 ‘재밍’ 과 이재명TV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끝)

첨부 : 이재명 후보 TV 광고 제2탄 ‘진심’ 편 전문 및 이미지컷

13살, 그 어렵게 살던 곳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소년 이재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최소한 내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어지는 세상이라야, 아이도
낳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 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
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호1번 이재명

13살,
 그 어렵게 살던 곳
 성년 상대인 시장에서
 소년 이재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